

# 가사문학 교육의 방법론적 전망

— 지역성과 젠더를 중심으로 —\*

백 순 철\*\*

## 차 례

1. 논의의 기반
2. 지역성과 가사문학
3. 젠더와 가사문학
4. 가사문학 교육의 방법과 전망  
- 지역성과 젠더를 중심으로

### | 국문초록 |

이 글은 가사문학 또는 가사문학 교육 연구에 있어서 주목을 받는 연구 중에서 전망적 가치를 지닌 주제로 '지역성'과 '젠더'에 착목하여 문학교실에서 이를 교육내용 및 방법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먼저 기왕의 연구에서 지역성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지역성'을 가사문학 생성의 기반으로 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실존으로서의 장소와 공간이 가사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방식을 지역성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는 대상화·지방화되어 가는 지역문화에 역사성과 구체성을 부여해주고, 시대나 집단을 중심으로 한 담론에 가려진 주체적 개인과 개별 작품의 삶과 의식을 온전히 복원해 주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젠더에 대한 논의에서 주된 대상은 규방가사 또는 여성가사이다. 연구 방법은 발굴되지 않은 새로운 작가와 자료를 찾아 문학사에 등재시킴으로써 그 존재론적 가치를 확정하는 것이고,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젠더의 보편적 의식지향과 특수한 개별 체험을 가진 작가의 고유한 세계관적 태도를 살피는 것이 또한 이에 해당할 것이다.

\* 이 글은 2016년 11월 11일 담양의 한국가사문학관에서 개최된 제17회 한국가사문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충북대 박연호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러한 논의의 검토를 토대로 하여 문학교실에서 가사문학을 교육할 때 ‘지역성’과 ‘젠더’의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성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성이 가사문학을 형성하는 생명력의 근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가사문학의 심상지리에 주목하며, 중앙 중심의 관점을 극복하며, 가사문학의 구체적 존재기반을 탐구하여 그 형성과 전승의 기반을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사문학을 교육할 때 ‘젠더’의 측면에서 고려할 점들을 짚어보면 먼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텍스트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가지며, 가사문학에서 정전(正典)의 목록을 재구성하거나 정전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여성문학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남성성/여성성의 이분법적 시각을 극복하여 여성가사가 도달할 수 있는 내용과 표현의 다양한 증거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되고 분화되어 가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의 접근과 연구가 효율적으로 교육 현장과 만날 때 우리의 문학교육은 좀더 생생한 담론의 대상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가사문학, 문학교육, 지역성, 젠더, 규방가사

## 1. 논의의 기반

가사문학 또는 가사문학 교육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2000년대를 전후하여 연구 경향에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선행연구의 70년 도정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1차에서 현행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이르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적 설계와 교과서의 실천적 내용을 들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을 전후하여 국어과 문학 영역의 목표와 내용은 몇 가지 국면에서 뚜렷한 변화의 징후를 보여주는데 고전문학 작품의 경우는 그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를 요약하면 ① 정전으로서의 고전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에서 언어활동자료로서의 가치를 함께 강조하는 것으로, ② 실제 중심의 문학관에서 활동 및 속성 중심의 문학관으로, ③ 텍스트 중심의 활동에서 목표 중심의 활동으로, ④ 지식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등의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sup>1)</sup> 고전문학은 작품의 이해와 수용에 관여하는 지적, 정서적 활동에 있어서 현대문학보다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에 긴박되어 있기에<sup>2)</sup> 이러한 변화는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 필연적이라는 것은 지식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경향 속에서 나타난 결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텍스트로서 고전문학 작품의 교육적 효용성을 입증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sup>3)</sup> 다른 하나는 고전문학 작품의 교육에 있어서 문화론적 시각을 관여시킴으로써 독자의 경험과 현재적 관점에서 좀 더 풍부한 해석과 가치판단이 가능하도록 텍스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점이다.<sup>4)</sup>

즉 문화적 시각으로 가사를 읽고 교육한다고 할 때 ‘문화’ 안에서 우리가 각별히 강조하고 유의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강가사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최근의 연구 흐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먼저 고광수는 대표적인 강호가사인 송순의 〈면양정가〉와 정철의 〈성산별곡〉의

- 
- 1) 류수열, 「관동별곡의 교재사적 맥락」,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2006, 457면.
  - 2) 김홍규는 문학작품의 수용에 관여하는 지적, 정서적 활동의 층위를 ① 텍스트에 관한 서지적 이해·판단, ② 텍스트 언어의 해독 ③ 장르적 관습·장치·특성의 이해, ④ 작품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요인, 환경 및 작자에 관한 이해, ⑤ 작품에 대한 느낌, 심미적 반응의 형성, ⑥ 작품 해석, ⑦ 작품에 대한 소감·평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고전문학 작품은 본격적인 작품 이해의 단계 전인 ①에서 ④까지의 과정이 생략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혼고학과 메마른 고증주의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고전문학을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으로 읽어낼 것을 제안한다.(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3, 한신문화사, 1992 봄.
  - 3) 이지호, 「고전소설의 대화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류수열, 「사설시조의 텍스트 구성 원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6; 류수열, 「〈혜성가〉의 발상과 표현: 고전문학 교육의 내용 설정을 위한 시문 1」, 『고전문학과교육』 4, 고전문학교육학회, 2002; 류수열, 「향가 형식론의 행방과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14, 한국어교육학회, 2002; 염은열, 「고려속요의 미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진태·박춘우, 「향가의 표현 유형과 표현 교육에의 활용 방안」, 『한국언어문학』 70, 한국언어문학회, 2009.
  - 4)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문화’적 시각을 가지고 연구한 논의는 많은 편이다. 특히 이 글의 주 대상인 가사와 관련된 연구는 거개가 이러한 문화론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진술방식이 각각 독백체와 대화체로 구현된 배경에 작자의 각기 다른 정치 사회적 처지에서 배태된 멘탈리티가 자리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sup>5)</sup> 표현론적 관점의 연구를 표방하고 있지만 미학적 성취의 양상과 의미를 16세기라는 역사적 상황과 사대부의 신분적 처지, 개인의 정치 이력 및 삶을 통해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시각의 접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창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동별곡>에 나타난 인간 이해를 통해 현재의 삶과 통하는 보편성의 자각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sup>6)</sup>

박연호는 이러한 문화론적 접근의 방법론을 더욱 정교화함으로써 송강 가사의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sup>7)</sup> 즉 중세의 원림미학이라는 보편적 전통과 관습체계 속에서 작가 개인의 개성적 인식과 세계관이 별도로 구현되고 있음을 누정제영의 문화코드들에 나타난 지역성과 역사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전기 강호가사에 나타난 독자적 경관인식과 미학적 성취는 누정제영시의 향유 관습을 지닌 작자가 이를 국문과 함께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가능했음을 강조한 것이다.<sup>8)</sup> 이러한 가사의 새로운 독법과 관련된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가사문학의 교육내용에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중세의 개념 이해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sup>9)</sup>

송강가사의 연구 추이를 예로 살펴보면 살피보았듯이 문학작품의 당대적 의미를 온

- 
- 5) 고광수, 「고전문학 교육의 한 방향-강호가사의 교육적 의미-」, 『문학교육학』 10,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 6) 한창훈, 「<관동별곡> 해석의 문학교육적 의미망」, 『문학교육학』 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 7) 박연호, 「면양정 원림과 <면양정가>」, 『개신어문연구』 22, 개신어문학회, 2004; 박연호, 「식영정 원림의 공간 특성과 <성산별곡>」, 『한국문학논총』 40, 한국문학학회, 2005; 박연호, 「문화코드 읽기와 문학교육-<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 8) 정무룡 역시 <관동별곡>의 독해에서 국문 중심으로 서술되는 여정의 진행 외에 개별 공간을 표현한 부분의 다채로운 수식은 누정한시문의 향유 관습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정무룡, 「송강 <관동별곡> 독해의 새 시각 모색」, 『한국시가연구』 23, 한국시가학회, 2007).
- 9) 박연호, 「고전문학의 교육 목적과 가사문학 교육 방안」, 『한국시가연구』 38, 한국시가학회, 2015.

전히 이해하는 것과 현재의 교육적 효용성을 탐색하는 것은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교육 목적으로 늘 길항관계에 놓여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과정을 보면 기계적 균형이나 절충주의적 태도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교육적 가치에 좀더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이 글에서 가사문학 또는 가사문학 교육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후자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된 가사문학 연구 또는 가사문학교육 연구들 사이에 연결되는 의미 맥락을 살펴보고, 이 연구들을 주로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의식 또는 새로운 관점이 앞으로의 문학 교실에서 교육내용 및 방법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바로 ‘지역성’과 ‘젠더’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최근 들어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커지면서 시가에서도 공간의 문화적 상징과 의미에 대한 연구가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평양이나 한양 같은 도시공간의 문화적 의미, 한강 주변과 시조문화, 백제가요와 백제문화권, 호남권의 가사문학, 영남권의 규방가사 등을 들 수 있다. 가사문학 연구에서 지역성은 장소성 등의 개념과 함께 혼용되면서 존재론적 의미가 강조되기도 하고 새로운 해석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젠더’와 관련된 연구이다. 가사문학의 내용과 주제적 지향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데 특히 조선후기와 근대 이후의 가사문학의 향방을

10) 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과목 목표를 보면 “문학 작품의 수용·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르고, 문학의 본질과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타인 및 세계와 소통하며 자아를 성찰하고 문학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문학”에서 추구하는 역량으로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선택중심 교육과정 일반선택 문학」, 『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 2015, 122~123면).

11) 한국시가문화학회의 학술지 『한국시가문화연구』의 주요 연구들과 한국가사문학관 주최 전국가사문학학술대회의 발표 주제들이 특히 이러한 연구 경향의 흐름을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살피는 데 있어서 여성담당층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여성성 또는 여성주의적 시각은 분리주의적 사고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서 긴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특히 가사문학에서는 규방가사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데 생명력을 가지고 전승되어 오는 오랜 역사성의 동력과 함께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역성과 젠더를 중심으로 한 가사 연구들의 경향성과 흐름을 살펴보고, 가사문학 교육에 있어서 그 전망적 가치를 가능해보고자 한다.

## 2. 지역성과 가사문학

일찍이 가사문학 연구에서 ‘지역성’은 고전문학 작품의 존재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획의 일환으로 제안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박진태는 고전문학이 현대에 적절하게 수용되는 방식으로 기록, 연구, 전시, 축제의 4가지를 제시하고, 가사 중 〈상춘곡〉의 축제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에 주목하였다.<sup>12)</sup> 대체로 관광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가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현재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의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의 발전에 치우쳐 있어서 산업적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고전문학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박진태의 일련의 연구는 순수학문적 연구를 지양하고 실용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sup>13)</sup> 고전문

12) 박진태, 「고전문학의 지역성과 〈상춘곡〉의 축제화」, 『한국문학의 경계 넘어서기』, 태학사, 2012, 341~356면. 이 글은 「지역문학으로서의 고전문학」,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2006 논문을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13) 박진태, 「한국고전문학의 지역성과 세계성」, 『어문연구』 62, 어문연구학회, 2009, 5~24면; 박진태, 「〈정읍사〉의 확산과 지역 축제로의 회귀」, 『국어교육』 126, 한국어교육학회,

학의 재창조를 통한 세계보편적 가치의 창출이라는 거시적 목표는 유의미한 것이지만 자칫 본말이 전도되어 작품의 고유한 의미나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고순희는 가사문학의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전통문학유산으로서의 가사문학의 가치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진전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양반가 여성의 규방가사 창작 문화에서 인문학적 정신의 생활화를 읽어내고, 가사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장소'로 환원하여 탐색하는 것에서 가사의 문화적 의미를 찾고 있다.<sup>14)</sup>

먼저 가사 향유 문화의 전통 즉 '가사 짓기 문화'를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가사에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현대사회로의 수용 및 계승의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영남 지역 규방가사의 향유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의사소통을 터득하고 의식의 계몽에 도달하게 된다. 고순희는 이러한 지역문화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문정신의 생활화'의 방법적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사실 가사 향유문화의 적극적 복원과 활용을 통해 가사의 현대적 계승 가능성을 제시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정병현은 가사 창작의 문화적 전통을 학교교육에서 적극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가사 장르의 역사성과 형식의 확장적 성격을 내면화하는 데에 있어서 창작 경험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sup>15)</sup> 최혜진 역시 가사의 문학적 자질이 민족문화의 전승적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료의 보존과 기록, 창작교육의 활성화에서 현대적 계승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sup>16)</sup>

2008, 1~29면.

14) 고순희, 「가사문학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한국시가문화연구』 3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15) 정병현, 「가사 교육의 현황과 창작의 필요성」, 『고시가연구』 21, 고시가문화회, 2008.

16) 최혜진, 「가사문학의 향유 전통과 현대적 계승」,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이와 달리 김신중은 ‘4음보격의 연속체 율문’이라는 전통적 갈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개화기 가사의 분연 형태를 수용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sup>17)</sup> 가사 개념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가사의 현대적 수용을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근대 이후 개화기가사에 나타난 형식의 실험과 자기갱신의 시도에서 현대적 계승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자들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가사창작의 문학행위를 통해서 가사의 역사성과 지역성 등이 자연스럽게 터득될 수 있다는 점은 화석화된 문학유산으로서 가사가 다뤄지는 것보다 사회적·교육적 효용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사문학의 전통적 가치와 현재의 교육적 가치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사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장소로 환원하여 탐색함으로써 가사의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소’의 성격은 문화권, 행정구역, 자연 지리적 환경, 마을 및 문중, 특정 구조물 등으로 나누기도 하고, 작가의 출신지나 창작지, 텍스트 내용 속의 공간으로 나뉘지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거의 모든 가사작품은 ‘장소’로 환원하여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심상, 문중의 정체성 등 다양한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사문학을 ‘장소’로 환원하는 시도는 문학작품의 존재론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중 가사작품을 지역이나 장소와 연계함으로써 그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최한선과 백순철에서도 확인된다. 최한선은 송강가사 4편 모두가 담양의 지역성과 관계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역문화콘텐츠로서 송강가사의 개발 가능성을 적극 제안하였다<sup>18)</sup> 담양의 지역성이 송강가사 창작의 정신사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역문화콘텐츠로서 가사문학의 가치와 위상을 극대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백순철은 화전놀이 문화

17) 김신중, 「가사의 형태적 변화와 현대적 수용」, 『고시가연구』 21, 고시가문화회, 2008.

18) 최한선, 「송강가사의 문화콘텐츠화 방향」, 『고시가연구』 33, 한국고시가문화회, 2014.



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온전히 복원하는 데에 있어서 화전가와의 결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그 중요한 기능으로 화해와 연대의 치유적 소통을 제시하였다.<sup>19)</sup> 화전가 본래의 문학적 기능과 의미를 되살리는 작업이 곧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이나 전시 등의 산업정보 콘텐츠로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가사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최한선이 이를 외재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면 백순철은 내재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사실 가사문학의 문예적 가치와 문화콘텐츠로서의 대중적 가치는 서로 모순되는 가치가 아니며 배타적이고 선택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한쪽의 발견과 탐구를 통해 다른 쪽의 실현을 담보하는 것이 당위적이고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달라서 혹여 송강의 문화적 위상에 압도되어 송강가사 4편에 나타난 지역성의 층위나 차이를 구명하는 데에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규방가사의 여성주의적 가치 발견에 경도되어 작품에 나타난 보편적 삶의 일상과 현실인식을 미처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사문학의 대중적 확산과 소통의 노력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상업화와 문화 왜곡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이며, 가사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를 탐구하고 발견하고자 할 때는 현재와 미래의 효용적 가치를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상원의 논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비교적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0)</sup> 먼저 출생지와 거주지,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상주문화권에 속하는 시가작품을 정리하면서 작가의 속성(담당층의 출사에 대한 적극적 태도), 장르적 차원(경기체가 부재와 가사의 높은 비중), 국문시가에 대한 인식(효용성보다 서정성의 우세) 등에 있어서 안동문화권과의 차별적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개

19)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한국고시기문화연구』 34, 한국고시기문화학회, 2014.

20) 이상원, 「상주 문화권 시가문학 연구」, 『어문론총』 5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별작품들을 특정 문화권의 산물로 범주화하고, 그 지역성을 담당층의 정치사회적 처지와 정신적 배경 속에서 찾아내어 이를 ‘회통성(會通性)’이라는 개념으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중 가사작품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5세기 : 조위(曹偉, 1454~1503)의 〈만분가〉
- 17세기 : 조우인(曹友仁, 1561~1625)의 가사 4편(〈매호별곡〉, 〈자도사〉, 〈속관동별곡〉, 〈출새곡〉)
- 최현(崔暉, 1563~1640)의 가사 2편(〈용사음〉, 〈명월음〉)
- 채득기(蔡得沂, 1605~1646)의 〈봉산곡〉
- 18세기 : 채헌(蔡憲, 1715~1795)의 가사 2편(〈석문정가〉, 〈석문정구곡도가〉)
- 민우룡(閔雨龍, 1732~1801)의 〈금루사〉
- 민우초(閔愚樵)의 〈초부가〉
- 이관빈(李寬彬, 1759~?)의 〈황남별곡〉
- 19세기 : 윤희배(尹喜培, 1827~1900)의 가사 2편(〈황산별곡〉, 〈미강별곡〉)
- 유인목(유인목, 1838~1900)의 〈북행가〉
- 20세기 :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1939)의 가사 49편
- 김주희(金周熙, 1860~1944)의 상주 동학가사 100여 편
- 신태식(申泰植, 1864~1932)의 〈신미년창의가〉

상주문화권의 가사를 보면 15세기에서 20세기 전반기까지 넓은 시대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창작된 작품의 유형 또한 유배가사(만분가, 자도사, 출새곡), 연군가사(봉산곡), 강호가사(매호별곡, 석문정가, 석문정구곡도가), 전란가사(용사음, 명월음), 도학가사(황남별곡, 황산별곡, 미강별곡), 기행가사(속관동별곡, 북행가), 애정가사(금루사), 규방가사, 동학가사, 의병가사 등 거의 전 유형이 망라되어 있다.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의 특징 또한 지역 경관의 묘사, 지역의 역사성, 작자(층)의 멘탈리티(개인/집단) 등이 주로 거론된다. 서울 근기 지역과도 가깝고, 충청 및 호남과도 교류가 가능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학풍과 문예 취향에 있어서도 폐쇄적이기보다 개방적이며 유연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음을 ‘회통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역

성의 의미역에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되더라도 시공간적으로 넓게 펼쳐진 작품들간에 하나의 관계망을 설정하여 종합하는 작업이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도 필자는 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을 살피면서 작품 각각의 개별적 특징에 유의하면서도 이를 관통하는 지역성의 양상을 추출해내고 있다.<sup>21)</sup> 이 역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선형적이기보다 귀납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상 개별 연구자들의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사문학에 나타난 지역성의 의미를 좀 더 정교화·풍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 가사문학에 나타난 지역성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성을 가사문학 생성의 기반으로 보는 시각이다. 장소에 대한 경험, 장소에 대한 인식, 장소에 대한 기억 등 작품에서 지역성을 추출해내기보다는 작자의 출신지, 창작지, 작품의 소비 유통 지역과 같은 컨텍스트 정보의 양적 지표에서 지역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을 색인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지역문화로서 가사의 존재론적 가치를 증명하기도 하고, 관광과 산업의 콘텐츠적 가치를 더욱 드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속성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지역문화 속에 편입된 개별 작품들의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다 보면 ‘지역성’이 단순히 지역구분의 기준으로 이해될 우려도 있다.<sup>22)</sup> 이는 의도하지 않게 각 지자체간의 문화적 우월감을 둘러싼 소모적인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역문화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환기하는 긍정적 효과는 인정할 수 있지만 텍스트 자체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독해와는 무관해 보이기 때문이다.

21) 이상원, 「문화, 역사, 지리·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 비교」, 『한민족어문학』 69, 한민족어문학회, 2015.

22) 지역성은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사상들, 즉 지형·기후·토양 등 자연요소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문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것이므로, 이를 밝혀내면 지역구분의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정치영, 「문화·역사지리학에서 지역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30(3)(통권 108호), 2007년 가을호, 67면).

둘째, 구체적인 실존으로서의 장소와 공간이 가사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방식을 지역성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는 장소와 공간의 역사적 고유성과 함께 작가 개인의 실존적 고유성을 가사문학의 텍스트에서 읽어내는 것이다.<sup>23)</sup>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장소, 공간의 의미가 작품 속에서 구체적 맥락을 가지고 획득될 때 가사에 대한 온전한 이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합목적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작품들을 살펴보자.

[1] 無等山(무등산) 혼 활기 띄히 동다히로 버더 이허 / 멀리 세쳐 와 齊月峯(제월봉)이 되어거늘 / 無邊大野(무변 대야)의 모습 짐작흐노라 / 닐곱 구벽 흠뻑 움쳐 므드므드 버러는 듯 / 가온대 구벽는 굵기 든 늘근 농이 / 선준을 갖 썩야 머리를 언쳐시니 / 너러바회 우희 松竹(송죽)을 헤혀고 亭子(정자)를 언쳐시니 / 구름 툰 靑鶴(청학)이 千里(천 리)를 가리라 두 노래 버러는 듯………天地(천지)도 넓고 넓고 日月(일월)도 혼가(閑暇)흐다 / 羲皇(희황)을 모을너니 니 적이야 괴로괴야 / 神仙(신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 江山風月(강산풍월) 거늘리고 내 百年을 다 누리면 / 岳陽樓(악양루) 상(上)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 오다 / 浩蕩(호탕)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 홀소냐 / 이 몸이 이렇 굵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sup>24)</sup>

[2] 園林(원림) 노픈 고딕 小堂(소당)을 지어 내니 / 軒窓(헌창)이 蕭灑(소쇄)흐던 眼界(안계)조차 너늘시고 / 三逕(삼경) 松篁(송황)은 새 빗줄 썩어 있고 / 十里(십리) 江山(강산)이 望中(망중)의 버러시니 / 月戶(월호) 風櫺(풍령)

23) 고광수, 「고전문학 교육의 한 방향-강호가사의 교육적 의미-」, 『문학교육학』 10,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박연호, 「문화코드 읽기와 문학교육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김창원,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과 방향-조선 후기 근기 지역 국문시가를 예로 하여」,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2007; 김창원, 「지역 고전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어문논총』 4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조유영, 「채현의 <석문정구곡도가>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어문논총』 60,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김은희, 「담양의 장소성에 대한 일고찰-〈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중심으로」,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5,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24) 이상보 편, 「9. 면양정가(俛仰亭歌)」, 『한국가사선집』, 집문당, 1981, 78~81면.

의 일 업시 비겨 이서 / 듯거니 보거니 勝趣(승취)도 하고 만타.....餘生(여생)이 언마치리 白髮(백발)이 날로 기니 / 世上(세상) 功名(공명)은 鷄肋(계륜)이나 다름소냐 / 江湖(강호) 魚鳥(어조)이 새 밍세 김퍼시니 / 玉堂(옥당) 金馬(금마)의 夢魂(몽혼)이 셋기였다 / 草堂(초당) 煙月(연월)의 시름업시 누워 이서 / 村酒(촌주) 江魚(강어)로 終日醉(종일취)를 願(원)호노라 / 이 몸이 이러구름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sup>25)</sup>

[3] 어저 도흘시고 石門亭(석문정) 도흘시고 / 小白山(소백산) 一枝脈(일지맥)이 金鷄主峯(금계주봉) 되야셔라 / 金鷄峯(금계봉) 마즌 짝의 石壁(석벽)이 削立(삭립)호야 / 兩峯(양봉)이 相對(상대)호니 석문(石門)이라 이란 마리 그 아니 울토던가 / 東西南北(동서남북) 호위봉(護衛峯)은 다섯 용이 모혀 있고 / 雲達山(운달산) 나린 물은 月溪(월계)로 相合(상합)호야 / 襟帶(금대)로 흘러가서 萬古不息(만고불식) 호는괴야 / 그 우희 터흘 보니 碩人幽居(석인유거) 合當(합당)호다 / 돌우희 터흘 족고 四間亭(사간정) 지어내니 / 堂二間(당이간) 洗心(세심)이오 房二間(방이간) 敬義(경의)로다.....물은 어이 涓涓(연연)호고 旣昏 어이 厚重(후중)호고 / 達理君子(달리군자) 내 아니라 요산요수(樂山樂水) 어이알이 / 竹杖(죽장)을 도로혀서 洗心堂(세심당) 드러오니 / 紛紛世事(분분세사) 내 아던야 間間白鷗(간간백구) 버지로다 / 어저 도흘시고 石門亭(석문정) 도흘시고 / 아마도 도흔 亭子(정자) 도흔 景(경)의 百年(백년)을 도케 노자 호노라<sup>26)</sup>

[1]~[3]의 인용된 작품들은 모두 강호시가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이며 작품의 서두와 말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각각 16세기 송순의 <면앙정가>(담양), 17세기 신계영의 <월선현십육경가>(예산), 18세기 채현의 <석문정가>(문경)로 공통적인 것은 화자가 거하는 누정과 그 주변의 자연경관을 통해 유가적 이상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누정을 둘러싼 원림의 풍수적 위상을 표현하는 내용이나 시어에서 단순한 심미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적 의미를 강조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를 굳이 표

25) 이상보 편, 「28. 월선현십육경가」, 『17세기 가사전집』, 교학연구사, 1987, 220면.

26) 이상보 편, 「51. 석문정가」,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 420면.

현하자면 강호형상의 역사적 고유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강호라고 하는 추상적 공간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이고 고유한 인식으로서 각 시기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성과 함께 이 작품들 사이에는 차이도 나타난다. 그 차이를 거칠게 말하자면 공간이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실존적 자아의 의식지향이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에서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실존적 고유성이라 할 수 있다. 작자가 구성한 구체적 대상으로서의 강호는 지리적 위치, 공간의 성격, 형상화의 방식 등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의식지향 또한 작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의 자연이 인간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화해로운 세계라면 [2]와 [3]의 자연은 화자에게 ‘계류’ 같은 대상이거나 ‘시름’을 유발하는 대상이며, ‘분분세사’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속의 반대편에 위치한 세계이다. 또한 [1]에서 현실에서 정치적 소임을 완수한 사대부의 여유와 낙관을 읽을 수 있다면, [2]와 [3]에서는 유가적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현실에 대한 무욕과 탈속으로 표백한 향촌사족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물론 그 정도에 있어서 [3]이 더욱 강화되어 자연에 대한 완전한 몰입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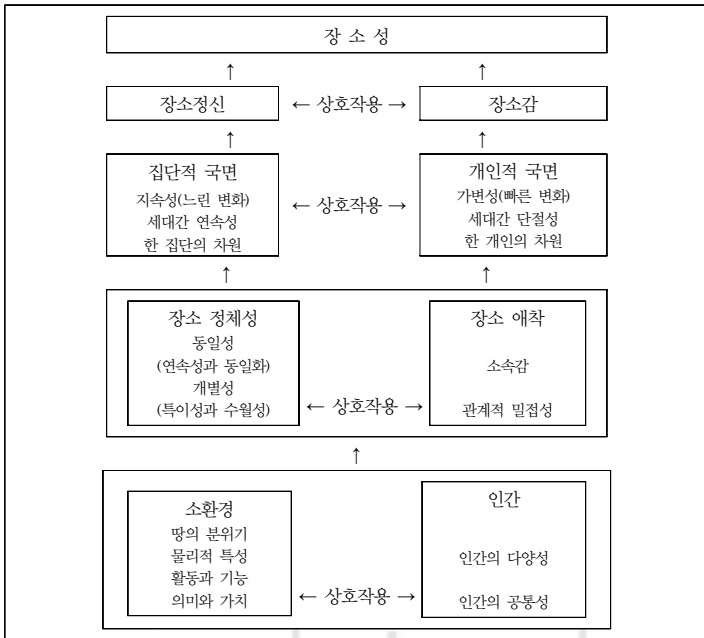
[1]~[3]에서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지역성을 읽어낼 때 우리는 한 지역의 문화가 동시대의 보편적 인식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통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역문화의 소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지역성에 주목할 때 특정한 역사공간과 담당층의 성격에 가려진 개별 작자의 개성과 미적 성취를 온전히 포착할 수 있다. 이석환·황기원에 의하면 전자는 장소정신으로, 후자는 장소감으로 볼 수 있고 이 둘이 합쳐진 총체적 특질이 장소성이 되는 것이다.<sup>27)</sup> 지역성의 변

27) “장소성은 한 장소가 인간의 실용적 국면, 개인의 지각적 국면, 그리고 문화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실존적 국면에 제대로 부합함으로써 진솔성을 확보하고 장소 정체성과 장소 애착을 유발하여 진솔한 장소감과 장소 정신이 형성된 총체적 특질이다.” (이석환·

증법적 성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두 가지 층위로 진행되어 온 가사문학의 지역성 논의를 검토해 볼 때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점차 대상화·지방화되어 가는 지역문화에 역사성과 구체성을 부여해주고, 시대나 집단을 중심으로 한 담론에 가려진 주체적 개인과 개별 작품의 삶과 의식을 온전히 복원해주는 것이 그것이다. 유념할 것은 지방의 문화와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역사성이 소거된 채 경제적 가치의 창출로 환원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며, 또한 지역성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형성되는 것이기에 텍스트의 새로운 해석적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둔다면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가사문학의 연구와 교육적 활용은 매우 잠재력이 풍부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181면).



### 3. 젠더와 가사문학

1990년대 후반 문학사의 전 영역에 걸쳐서 여성작가들의 문학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여성작가 관련 자료들을 발굴, 정리, 집대성하는 작업이 제출되었다.<sup>28)</sup> 남성 중심의 문학사 기술이 여성문학의 전개양상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극복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성기옥은 고전 여성 시가의 작가와 작품을 정리하면서 18·19세기 여성가사의 기명작가와 작품을 규방가사와 일반가사의 중간부에 놓이는 자료로 규정하였다.<sup>29)</sup> 주요 작가와 작품으로는 18세기 전반의 안동권씨부인(1718~1789)의 <반조화전가(反嘲花煎歌)>(경북 봉화), 전의이씨부인(1723~1748)의 <절명사(絶命詞)>(1748, 경북 현풍), 18세기말~19세기초 정부인연안이씨(1737~1815)의 <쌍벽가(雙壁歌)>(1794, 경북 안동)와 <부여노정기(夫餘路程記)>(1802), 남원윤씨부인(1768~1801)의 <명도자탄사(命道自嘆辭)>(1801, 경기), 19세기 전반의 순원왕후김씨(1789~1857)의 <김대비훈민가>와 <부인훈민가>, 효원왕후김씨의 <태평사(太平詞)>, 광주이씨부인의 <이부인기행가수>, 은진송씨부인(1803~1860)의 <금행일기(錦行日記)>(1845, 논산)와 <혹양가(畜養歌)>, 19세기 후반의 남양홍씨부인(1851~1923)의 <홍씨부인계녀사(洪氏夫人戒女詞)>, 진보이씨부인의 <애련가(哀戀歌)>(영천), 윤희순(1860~1935)의 의병가사 7편(춘천 등)이다. 19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규방가사가 개인적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양식으로 확장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동연은 조선 후기 규방가사 작가들인 양반가여성들의 보편적 작가의식을 계녀가류, 탄식가류, 화전가류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sup>30)</sup>

28)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29) 성기옥, 「고전여성시가의 작가와 작품」,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66~149면.

30) 이동연, 「4장 고전 여성 시가작가의 문학세계-III. 가사」,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312~358면.



성기옥은 개별 주체의 특수성에, 이동연은 담당층의 보편적 의식지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성기옥의 작업은 이후 개별 연구로 심화되어 규방가사의 공통성과 함께 개별 작가의 고유성이 검토된 바 있다.<sup>31)</sup>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대체로 여성 작가에 의해 창작된 규방가사의 역사적 전개양상과 보편성의 형성과정을 구명한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규방가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백순철은 화전가가 수행하는 사회·문화적 역할로서 ‘놀이와 문학의 결합’과 ‘독립된 자기표현’을 지적하고, 언어예술적 자질 이외에 공동체가 추구하는 미래적 가치도 교육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32)</sup> 이러한 그의 연구는 20세기 이후 개별 작가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먼저 최송설당 가사는 근대적 문체를 적극 수용하면서 여성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각, 자기점검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적 책임감과 사회의식이 가사의 문체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sup>33)</sup> 소정 이휘 여사의 가사 역시 독립의지와 항일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근대적 매체의 표현양식에 익숙한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sup>34)</sup> 또한 은촌 조애영의 가사도 항일의식이나 독재에 대한 비판적 태도 등 강한 대사회적 문제의식과 함께 근대적 문체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sup>35)</sup> 일련의 연구에서 우선 공통적인 관점은 규방가사라는 포괄적 유형 개념보다 최송설당 가사, 소정가사, 은촌 조애영 가사 등 여성 작자 개인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통적인 여성의식과는 차별화되는 사회의식과 공적인 태도 등을 근현대 여성 젠더들의 개별적 경험과 개

31) 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32) 백순철, 「규방가사의 문화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 I」, 『국어교육학연구』 14, 국어교육학회, 2002.

33) 백순철, 「최송설당 가사의 문체와 현실인식」, 『고시가연구』 15,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34) 백순철, 「소정가사의 독립의식과 문체적 특징」,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35) 백순철, 「은촌 조애영 가사의 문체와 현실인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성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것도 공통적이다. 이는 여성들의 규방가사가 그 전통을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형식과 내용에서 변화하는 시대상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고찰한 것이다.

박경주는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한 여성문학 내에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주목하였다.<sup>36)</sup> 남성 작가가 창작한 규방가사, 여성이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아를 찾아가는 규방가사 등을 통해 규방가사의 향유범위와 변화상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징을 향촌사회의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성집단이 아닌 상대 성집단의 특성을 지향 혹은 발현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고, '양성성'이 드러난 것으로 본 것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정옥은 조선후기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규방가사는 향유방식과 문학적 표현양상에 있어서 자기갱신을 거듭하며 현재진행형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sup>37)</sup> 특히 현대내방가사의 자료 양상을 영천시, 봉화문화원, 안동문화원, 울진문화원, 경상북도, 경주향교, 가사문화관 등 지자체나 기관에서 정리한 자료, 벽진이씨 가문, 경주최씨 가문, 영천이씨 가문, 단양우씨 월촌종가, 경북경산 가문세전 자료 등 문중 자료, 그리고 은촌 조애영, 소고당 고단, 소정 이휘 등 개인가사집과 신작모음집 등의 자료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내방가사경창대회'와 같은 공개적인 유통 공간이 내방가사의 문체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언급하였다. 전통적인 창작과 향유문화의 복원이 쉽지 않다면 새로운 향수방식의 개발도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현대적 계승을 위한 적극적 변용의 시도를 통해 내방가사의 새롭고 풍성한 세계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그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가사문학의 생명력과 미래적 전망을 규방가사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적이라

36) 박경주,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37) 이정옥, 「가사의 향유방식과 현대적 변용문제」, 『고시가연구』 2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생각된다.

고순희는 안동 지역 양반가 여성의 뿌리깊은 가사 창작 문화에서 만주망명 가사문학이 배태되었음을 설명하였다.<sup>38)</sup> 주요 작가와 작품으로는 이호성(1891~1968)의 〈위모사〉, 김우락(1854~1933)의 〈조손별서〉·〈간운사〉, 김우모(1874~1965)의 〈눈물뿌린 이별가〉, 안동권씨(1862~1938)의 〈송교행〉, 고성 이씨(1894~1927)의 〈답사친가〉 등이 있다. 이들 가사에는 여성작가들의 독립 운동 의지와 역사·사회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이는 근대시기 안동 지역 여성 젠더의 가사문학에 나타난 주제적 관심이 남성들의 양반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여성들이 가사를 자신들의 일상생활이나 독자적 문화를 기록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인식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소통의 매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젠더’와 관련된 가사문학 논의에서 주된 대상은 규방가사 또는 여성 가사라고 할 수 있다. 가사문학을 젠더적 관점에서 볼 때 발굴되지 않은 새로운 작가와 자료를 찾아 문학사에 등재시킴으로써 그 존재론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무기명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도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젠더의 보편적 의식지향, 기명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도 특수한 개별 체험을 가진 작가의 고유한 세계관적 태도를 살피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될 것이다.

#### 4. 가사문학 교육의 방법과 전망

##### - 지역성과 젠더를 중심으로

앞선 논의에서 가사문학의 연구에서 ‘지역성’과 ‘젠더’의 주제가 어떠한 논의

38) 고순희,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5,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좀 더 논의의 범위를 좁혀 문학교실에서 가사문학을 교육할 때 ‘지역성’과 ‘젠더’의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얘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성’의 측면에서 교과서의 교육 내용이나 학습활동을 구성하고 설계할 때 고려할 점들을 짚어 보자. 첫째, 가사문학의 심상지리에 주목한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가사문학에 나타나는 지역, 장소, 공간의 문학적 상징성을 지역성 탐구를 통해 해명하거나, 또는 특정 지역과 밀착된 가사 양식의 전승 전파 과정을 통해 지역성이 가사문학을 형성하는 생명력의 근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앙 중심의 관점을 극복한다. 중앙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방 또는 지역의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한다. 예를 들면 백제노래나 삼국 또는 고려의 실전가요를 보면 지방에서 생성되어 그 범위를 전국적으로 넓혀가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유배가사의 작가가 서울 이외의 모든 곳을 ‘강남’으로 구획해 버리는 것에서 유배지에 대한 중앙인의 심상지리의 토대를 읽을 수 있다.<sup>39)</sup> 문화의 전승 전파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가사문학의 구체적 존재기반을 탐구한다.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조성된 사대부들의 은거 공간을 통해 가사의 창작과 향유 과정을 살펴보거나, 또는 장흥 방촌과 같은 향촌의 동족 촌락을 통해 가사문학의 다양한 형성과 전승 기반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사문학을 교육할 때 ‘젠더’의 측면에서 고려할 점들을 짚어보자. 첫째,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텍스트를 바라본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문학생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사작품의 문학적 가치나 의의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강호가사와 화전가류, 교훈가사와 계녀가류, 유배가사와 탄식가류 등 사대부가사와 규방가사를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비교하여 문학성을

39) 김창원,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과 방향-조선후기 근기 지역 국문시가를 예로 하여」,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화회, 2007, 258면.

제단하는 것은 자칫 여성문학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사문학에서 정전(正典)의 목록을 재구성하거나 정전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기명 작가와 창작 시기가 분명한 작품을 중심으로 가사문학의 제재를 선정한다면 몇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방가사는 교과서에 수록될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가사문학은 전근대 문학양식이라는 전제로 인해 20세기 이후 창작된 수많은 여성들의 가사작품이 배제되는 현실 또한 가사문학의 다채롭고 풍성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남성성/여성성의 이분법적 시각을 극복한다. 남성/여성에 대한 선형적 인식으로부터 가사작품을 독해할 경우 자칫 여성들의 관심 영역, 생활 양상, 문체나 수사 등에 이르기까지 개별적 다양성보다는 포괄적인 공통점을 범주화하여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16세기 허난설헌의 <규원가>에 나타난 결혼 제도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 18세기 <반조화전가>에 나타난 발랄함과 자신감, 20세기 조애영가사에 나타난 역사의식 등은 여성가사가 도달할 수 있는 내용과 표현의 다양한 증거이다. 남성가사의 다양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젠더적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할 때 남성/여성 의식의 근원에 사회 문화적 영향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실제적 의미에 천착하게 될 것이다.

이상 ‘지역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볼 때 가사문학 전체에서 양적으로 존재 의의를 가지는 것 못지않게 질적 측면에서도 주목해 볼 유형은 바로 규방가사이다. 규방가사는 영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파된 가사 유형이다. 영남이라는 지역의 독특한 생활문화나 관습이 조선후기를 거쳐 근대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경하는 생산과 소비, 문자성과 구술성을 기준으로 조선후기 양반 여성들의 문학생활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sup>40)</sup> 먼저 여성들의 한문학은 생산

40) 이경하, 「조선조 여성의 문학생활 연구 시론-〈反嘲花煎歌〉의 安東權氏女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100(26권 3호), 일지사, 2000.

주체·문자문화 지향적이며, 〈바리공주〉같은 서사무가를 국판에서 향유했던 여성들의 문학생활은 소비 주체·구술문화 지향적이며, 화전가를 비롯한 규방 가사는 생산과 소비, 문자성과 구술성이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조선 조 여성들의 문학생활이 소비 주체에서 생산 주체로, 구술 문학에서 문자 문학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중간적 형태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는 가사문학에서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있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규방가사는 가사문학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지역성'에 대한 탐구와 '젠더'에 대한 관심이 왜 중요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갈래라고 할 수 있다. 미학적 성취나 주제적 관심과 같은 텍스트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문학생활과 창작환경과 같은 컨텍스트도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갈래이기 때문이다. 규방가사 텍스트가 전승되고 재생산되는 과정, 향유과정의 지속과 변화, 시대별 관점의 통합 등을 통해 볼 때 가사문학은 우리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송설당, 은촌 조애영, 소정 이휘의 가사들이 있다. 문학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규방가사의 모습에서 중앙/남성 중심의 시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가사문학 교육 나아가서는 문학교육 전반에 걸쳐서 좀 더 미래의 교육적 효용성을 고려하고 그 전망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심/주변, 남성/여성, 상층/하층, 다수/소수 등의 차별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성과 젠더는 바로 이러한 교육적 독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자료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선택중심 교육과정 일반선택 문학」, 『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 2015.
- 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박경주,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 성기옥, 「고전여성시가의 작가와 작품」,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 이동연, 「4장 고전 여성 시가작가의 문학세계-III. 가사」,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 이상보, 「28. 월선헌십육경가」, 『17세기 가사전집』, 교학연구사, 1987.
- 이상보, 「51. 석문정가」,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
- 이상보, 「9. 면양정가(倅仰亭歌)」, 『한국가사선집』, 집문당, 1981.
-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 2. 논저

- 고광수, 「고전문학 교육의 한 방향-강호가사의 교육적 의미-」, 『문학교육학』 10,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217~237면.
- 고순희, 「가사문학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한국시가문화연구』 3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5~35면.
- 고순희,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5,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5~29면.
- 김신중, 「가사의 형태적 변화와 현대적 수용」, 『고시가연구』 21, 고시가학회, 2008, 109~129면.
- 김은희, 「담양의 장소성에 대한 일고찰-〈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중심으로」,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5,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83~117면.
- 김창원, 「지역 고전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어문론총』 4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23~49면.
- 김창원,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과 방향-조선후기 근기 지역 국문시가를 예로 하여」,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2007, 258면.

- 김흥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3, 한신문화사, 1992 봄, 42~53면.
- 류수열, 「〈해성가〉의 발상과 표현: 고전문학 교육의 내용 설정을 위한 시론 I」, 『고전문학과교육』 4, 고전문학교육학회, 2002, 145~166면.
- 류수열, 「관동별곡의 교재사적 맥락」,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2006, 457면.
- 류수열, 「사설시조의 텍스트 구성 원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류수열, 「향가 형식론의 행방과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14, 한국어교육학회, 2002, 165~184면.
- 박연호, 「고전문학의 교육 목적과 가사문학 교육 방안」, 『한국시가연구』 38, 한국시가학회, 2015, 141~166면.
- 박연호, 「면양정 원림과 〈면양정가〉」, 『개신어문연구』 22, 개신어문학회, 2004, 141~164면.
- 박연호, 「문화코드 읽기와 문학교육-〈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67~87면.
- 박연호, 「식영정 원림의 공간 특성과 〈성산별곡〉」, 『한국문학논총』 40, 한국문학학회, 2005, 33~58면.
- 박진태, 「〈정읍사〉의 확산과 지역 축제로의 회귀」, 『국어교육』 126, 한국어교육학회, 2008, 1~29면.
- 박진태, 「고전문학의 지역성과 〈상춘곡〉의 축제화」, 『한국문학의 경계 넘어서기』, 태학사, 2012.
- 박진태, 「한국고전문학의 지역성과 세계성」, 『어문연구』 62, 어문연구학회, 2009, 5~24면.
- 박진태·박춘우, 「향가의 표현 유형과 표현 교육에의 활용 방안」, 『한국언어문학』 70, 한국언어문학학회, 2009, 237~269면.
- 백순철, 「규방가사의 문화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 I」, 『국어교육학연구』 14, 2002, 185~210면.
-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한국고시가문화학회』 34,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217~249면.
- 백순철, 「소정가사의 독립의식과 문체적 특징」,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433~460면.



- 백순철, 「은촌 조애영 가사의 문체와 현실인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339~374면.
- 백순철, 「최송설당 가사의 문체와 현실인식」, 『고시가연구』 15, 한국고시가문학학회, 2005, 195~226면.
- 염은열, 「고려속요의 미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경하, 「조선조 여성의 문학생활 연구 시론-〈反嘲花煎歌〉의 安東權氏女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100(26권 3호), 일지사, 2000.
- 이상원, 「문학, 역사, 지리-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 비교」, 『한민족어문학』 69, 한민족어문학회, 2015, 169~203면.
- 이상원, 「상주 문화권 시가문학 연구」, 『어문논총』 5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257~281면.
-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181면.
- 이정옥, 「가사의 향유방식과 현대적 변용문제」, 『고시가연구』 22, 한국고시가문학학회, 2008, 259~282면.
- 이지호, 「고전소설의 대화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정무룡, 「송강 〈관동별곡〉 독해의 새 시각 모색」, 『한국시가연구』 23, 한국시가학회, 2007.
- 정병현, 「가사 교육의 현황과 창작의 필요성」, 『고시가연구』 21, 고시가문학학회, 2008, 295~318면.
- 정치영, 「문화·역사지리학에서 지역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30(3)(통권 108호), 2007년 가을호, 67면.
- 조유영, 「채현의 〈석문정구곡도가〉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어문논총』 60,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203~223면.
- 최한선, 「송강가사의 문화콘텐츠화 방향」, 『고시가연구』 33, 한국고시가문학학회, 2014, 345~399면.
- 최혜진, 「가사문학의 향유 전통과 현대적 계승」,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515~545면.
- 한창훈, 「〈관동별곡〉 해석의 문학교육적 의미망」, 『문학교육학』 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57~80면.

| Abstract |

## Methodological Prospect of Literary Education in Gasa

— Focusing on regionality and gender —

Paik, Sun-chul

This article focuses on 'regionality' and 'gender' as a topic with prospective value among the studies that are attracting attention in the research on the Gasa literature or the literary education in Gasa and how to accept and practice it in the literary classroom. The purpose is to present a perspective.

First, there are two ways to view the regionality in the study of the former. One is to view the 'regionality' as the basis of the production of the Gasa literature, and the other is the way in which the place and space as the concrete existence are reflected in the Gasa text. This is a research that gives historical and specificity to the local culture that is subject to localization and localization, and restores the life and consciousness of the individual individual and individual works hidden in the discourse centering on the age and group.

Next, the main subject in the discussion on gender is the Kyubanaggasa or Gasa of the female household. The research method is to confirm the ontological value by listing new writers and materials that have not been discovered and to register them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e universal consciousness of female gender sharing the same experience and the unique worldview attitude of the author.

Based on the review of these discussions, how to apply and practice the problem of 'regionality' and 'gender' when teaching housekeeping literature in literary class is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confirm that the regionality is the source of vitality forming the domestic literature, I focus on the image geography of the domestic literature, observe the central point of view, explore the concrete existence of the domestic literature. Next, when teaching the Gasa literature, the points to be considered in the aspect of 'gender' are as follows : First, it has a viewpoint and attitude looking at the text away from the male - centered viewpoint, and restructuring the list of canons in the housekeeping literature, And to overcome the dichotomical

view of masculinity / femininity and to confirm the diverse evidence of contents and expression that women's households can reach. This approach to literary education can be a more lively discourse when the approach and research of various perspectives and perspectives that are changed and differentiated meet the educational field efficiently.

**Key words** : Gasa Literature, Literary Education, regionality, gender, Kyubanggasa

